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이사의 AI 활용 현황

AI 및 생성형 AI(GenAI)'는 이제 이사회가 감독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의 거버넌스 및 감독 책임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I는 전사 업무와 핵심 비즈니스 기능 전반에서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반면, 이사회 차원의 활용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기업별 편차가 크고 아직
성숙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사회가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I의 활용 관행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건전한 거버넌스의 핵심인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 건전한 비판적 시각 및 책임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는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3~4월에 실시된 이번 서베이는 이사의 직접적인
AI/생성형 AI 활용뿐 아니라 경영진 또는 거버넌스 담당 조직이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활용까지 포함하여, 이사회 활동 및 감독 업무에서 AI/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Findings

Respondents, primarily corporate secretaries, in-house counsel, and other governance professionals, represent 92 public companies and 14 private companies of varying sizes and industries,² and the findings pertain to these companies. The actual number of responses for each question is provided. Some survey results may not sum to 100% as questions may have allowed respondents to select multiple answers.

Findings are organiz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pertaining to public companies in the aggregate, and an Appendix that sets forth results for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companies by market cap size.

Highlights

- **Board adoption of AI/GenAI remains early-stage and inconsistent.** Many companies have not formally enabled or standardized AI/GenAI for board activities, with nearly half of public companies not expressly supporting its use. Respondents overall are “unsure” whether their boards use AI/GenAI for board activity, and known adoption and use cases vary across organizations.
- **Current use and capability-building efforts are focused on practical applications and education.** Boards that use AI/GenAI primarily apply it to administrative and analytical tasks such as reviewing reports, summarizing materials, preparing questions, and identifying discussion topics. Respondents report that their organizations are more commonly enhancing AI capability through management briefings and director education than through formal governance mechanisms, recruitment efforts, or board evaluation processes.
- **Policies, guidance, and governance practices are still developing.** Most respondents reported a lack of board-specific AI policies or governance practices. Where policies exist, they tend to focus on security, confidentiality, acceptable use, legal considerations, and recordkeeping.

Endnotes

1. In this report and the accompanying survey for which it was developed, “AI/GenAI” refer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the ability of computer systems to perform tasks that normally require human intelligence or human cognitive functions, such as visual perception, speech recognition, learning, decision-making, and translation between languages. *Generative AI Technology (GenAI)*—any software, application, model, product, tool, system, or service that generates new content or outputs when prompted by a User, by relying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s (e.g., neural networks) to analyze patterns and relationships within large data sets (e.g., of images, programming code, or document summaries).
2. Public company respondent market capitalization as of December 2025: 52% large-cap (which includes mega- and large-cap) (> \$10 billion); 37% mid-cap (\$2 billion to \$10 billion); and 11% small-cap (which includes small-, micro-, and nano-cap) (< \$2 billion). Respondent industry breakdown: 34% financial services; 27%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s; 17% consumer; 15%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and 8% life sciences and health care. Private company respondent annual revenue as of December 2025: 50% large (> \$1 billion); 29% medium (\$250 million to \$1 billion); 14% small (< \$250 million); 7% not able to share. Respondent industry breakdown: 62% financial services; 23% consumer; 15% energy, resources, and industrials; 0%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and 0% life sciences and health care. Small-cap findings have been omitted from this report due to limited respondent population.

조사 결과

응답자는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사내 변호사 및 기타 거버넌스 실무자로, 다양한 규모와 산업군²에 속한 92개 상장기업과 14개 비상장기업을 대표합니다.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해당 기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합니다. 각 문항에는 실제 응답 수를 병기하였습니다. 일부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응답 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1) 상장기업 전체(집계) 결과와 (2) 부록의 비상장기업 결과 및 상장기업 시가총액 규모별 결과로 구성됩니다.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영미권 기업에서 이사회 운영,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주주총회 지원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책임자 또는 고위 관리직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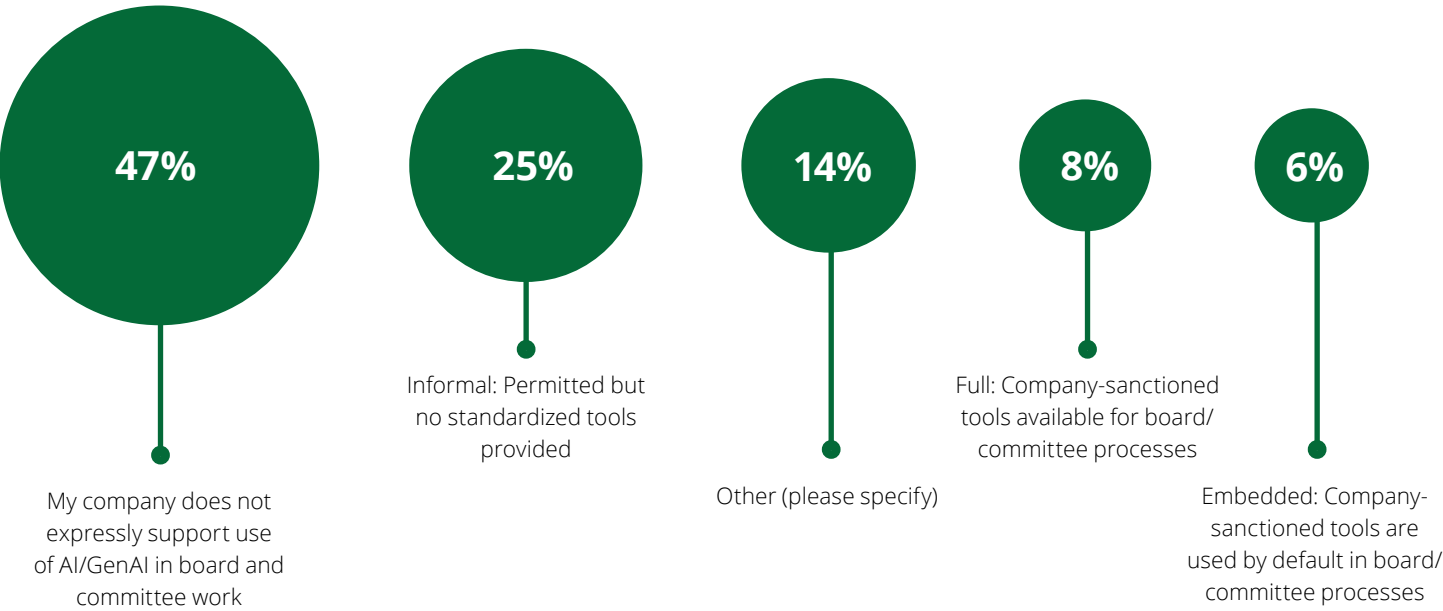
- **이사회의 AI/생성형 AI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기업별 편차가 있음** 많은 기업이 이사회 활동에서 AI/생성형 AI 활용을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표준화하지 않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약 절반은 그 활용을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사 이사회가 이사회 활동에 AI/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파악된 도입 수준과 활용 사례도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 **현재의 활용 및 역량 강화는 실무 적용과 교육에 집중** AI/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이사회는 주로 보고서 검토, 자료 요약, 질의사항 준비 및 논의 주제 발굴 등 행정적·분석적 업무에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이사 후보자 물색·선임 절차 또는 이사회 평가 절차에 AI 역량을 반영하기보다는 경영진 브리핑과 이사 교육을 통해 AI 역량을 강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 **이사회 차원의 AI 정책, 가이드라인 및 거버넌스 관행은 아직 정립 단계**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사회에 특화된 AI 정책이나 거버넌스 관행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관련 정책을 마련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보안, 기밀유지, 허용 가능한 사용 범위, 법률적 고려사항 및 기록관리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1. 본 보고서 및 서베이에서 'AI/생성형 AI'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AI): 시각 인식, 음성 인식, 학습, 의사결정, 언어 번역 등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 또는 인지 기능이 필요한 작업을 컴퓨터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생성형 AI(GenAI): 머신러닝 기술(예: 신경망)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세트(예: 이미지, 프로그래밍 코드, 문서 요약)의 패턴과 관계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Prompt)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또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모델, 제품, 도구, 시스템 또는 서비스
2. 2025년 12월 기준 상장기업 응답 기업의 시가총액별 분포는 대형 상장기업(메가캡 및 대형주 포함, 100억 달러 초과) 52%, 중형 상장기업(20억~100억 달러) 37%, 소형 상장기업(소형주, 마이크로캡 및 나노캡 포함, 20억 달러 미만) 11%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분포는 금융서비스 34%, 에너지·자원산업재 27%, 소비재 17%, 기술·미디어·통신(TMT) 15%,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8%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비상장기업 응답 기업의 연매출 규모별 분포는 대형 기업 50%(10억 달러 초과), 중형 기업 29%(2억 5천만~10억 달러), 소형 기업 14%(2억 5천만 달러 미만)였으며, 연매출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7%였습니다. 산업별 분포는 금융서비스 62%, 소비재 23%, 에너지·자원산업재 15%였으며, 기술·미디어·통신(TMT) 및 생명과학·헬스케어는 각각 0%였습니다. 소형 상장기업은 응답 기업 수가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사 결과를 본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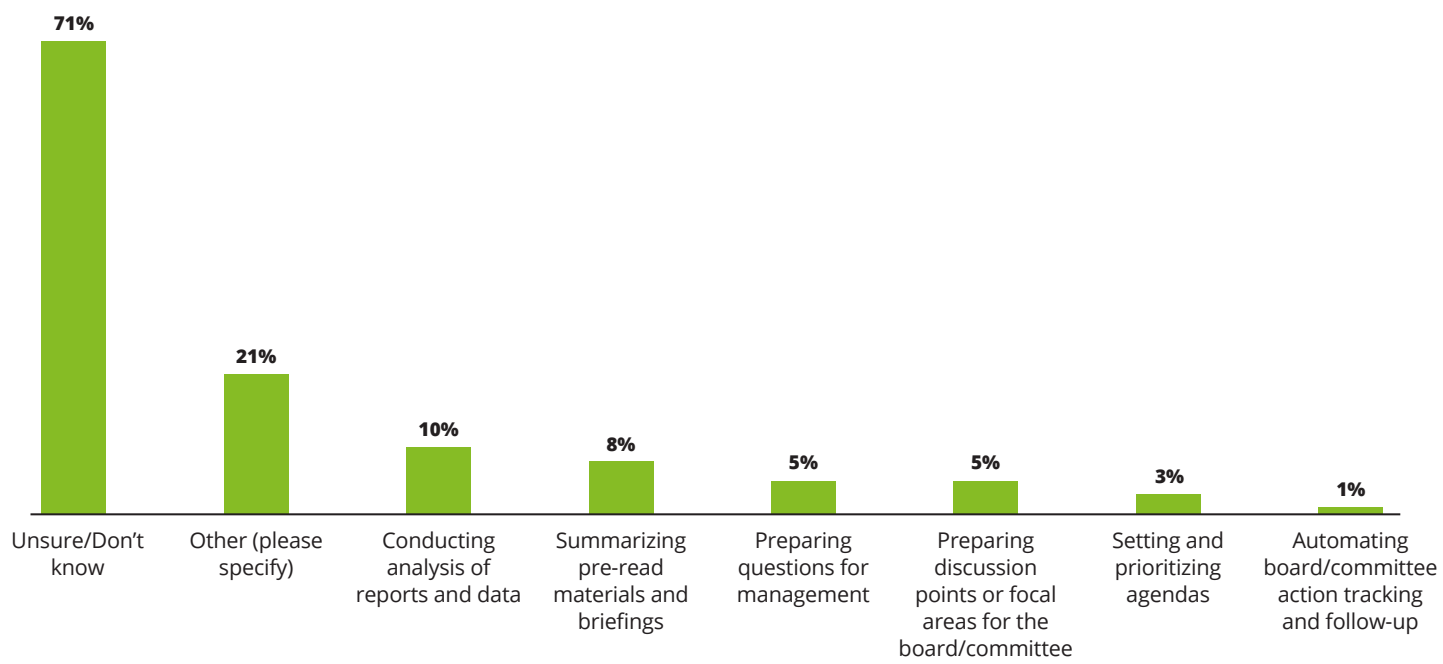
Public company findings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your company’s level of support for AI/GenAI in board and committee work?
(87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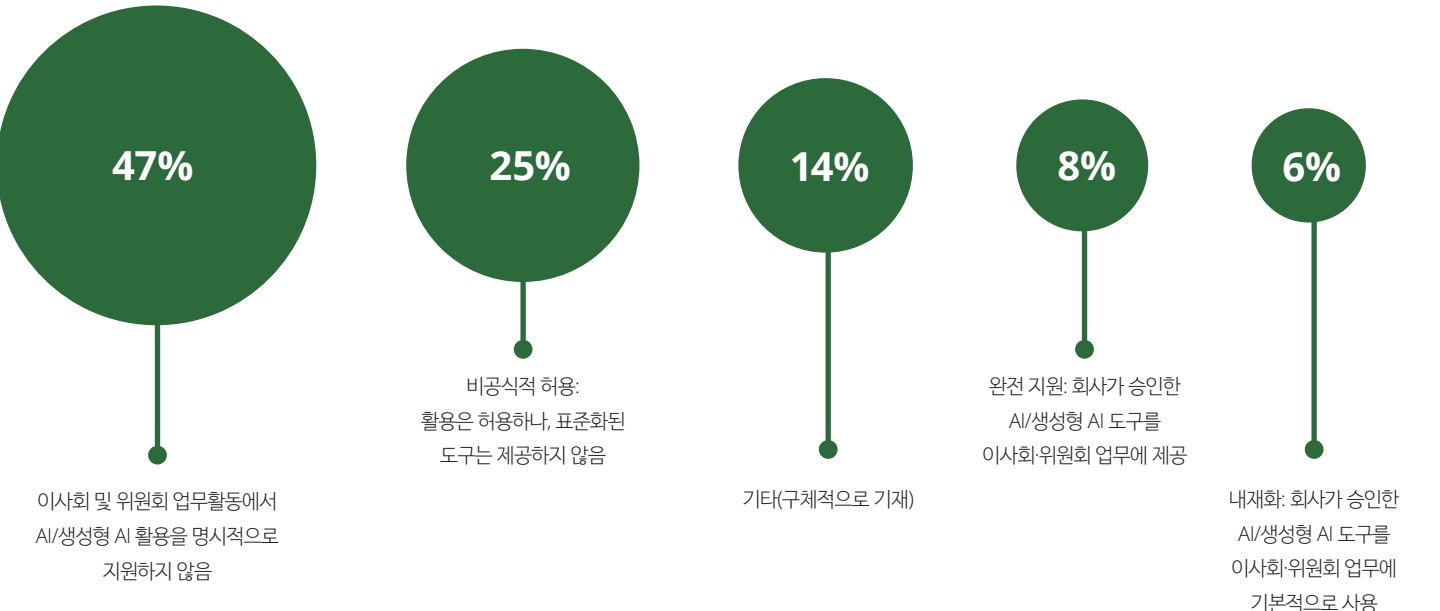
Note: No respondent selected "Unsure/Don't know."

In the past six months, to your knowledge, has your board and/or its committee members used AI/GenAI in any of these meeting-related activities? Select all that apply. (73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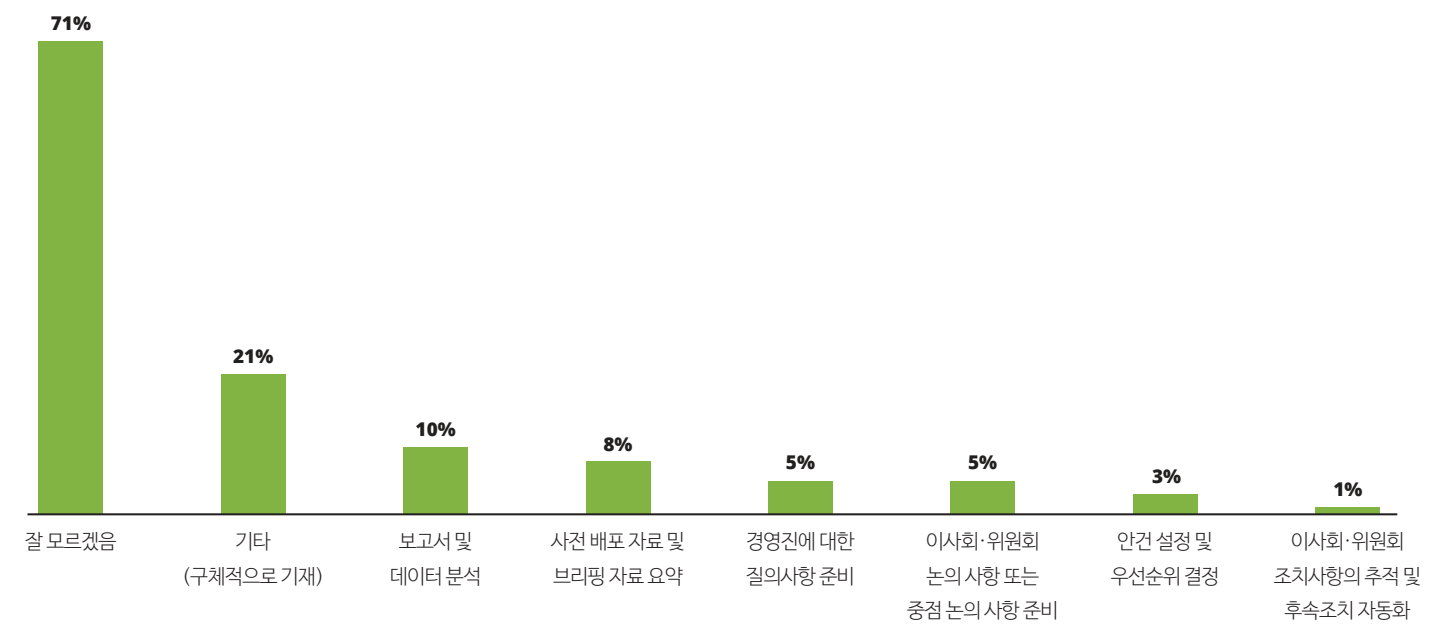
상장기업 조사 결과

귀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업무에서 AI/생성형 AI 활용을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87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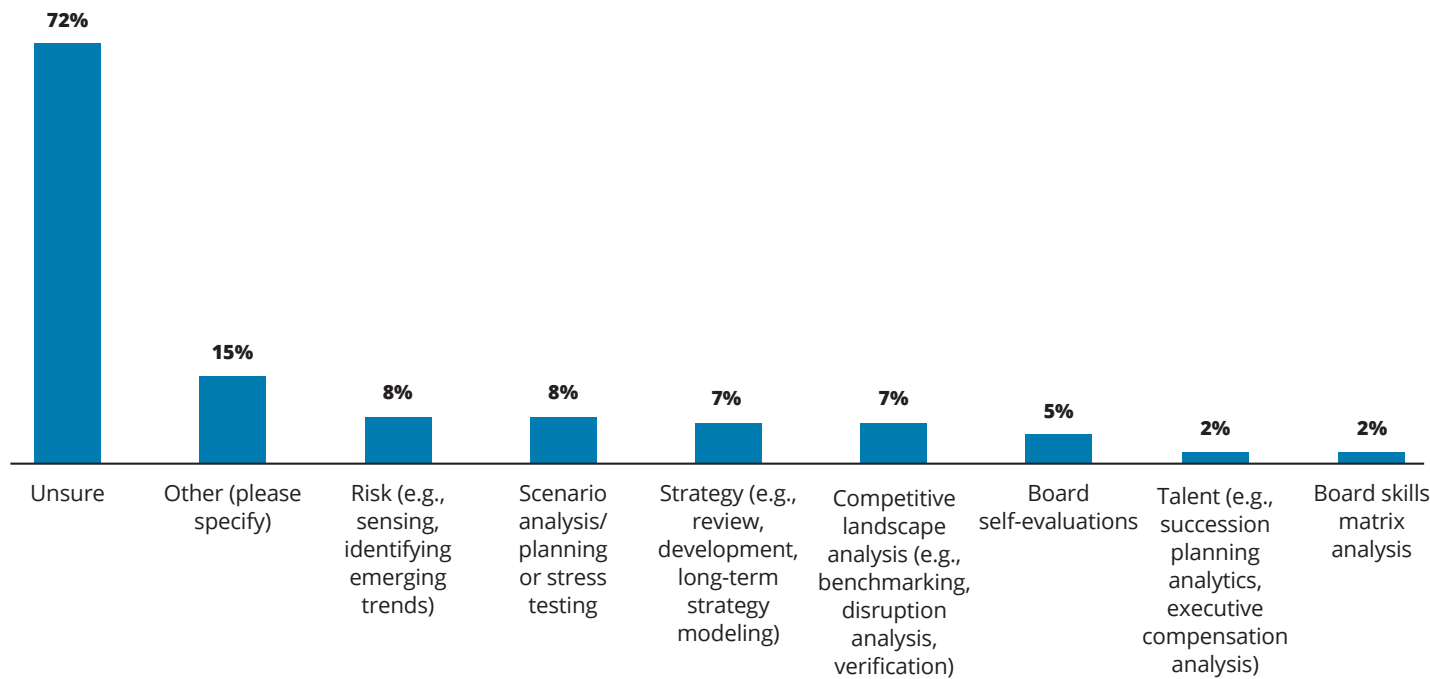


참고: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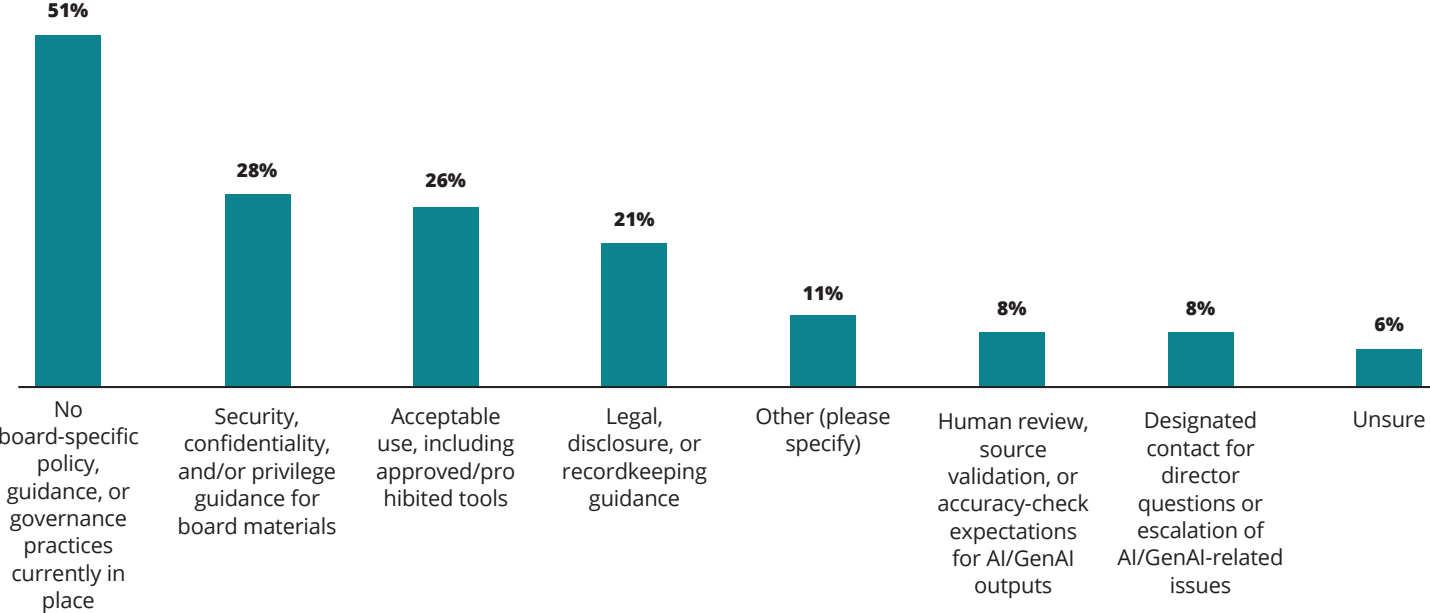
지난 6개월 동안 (귀하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귀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다음의 회의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AI/생성형 AI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73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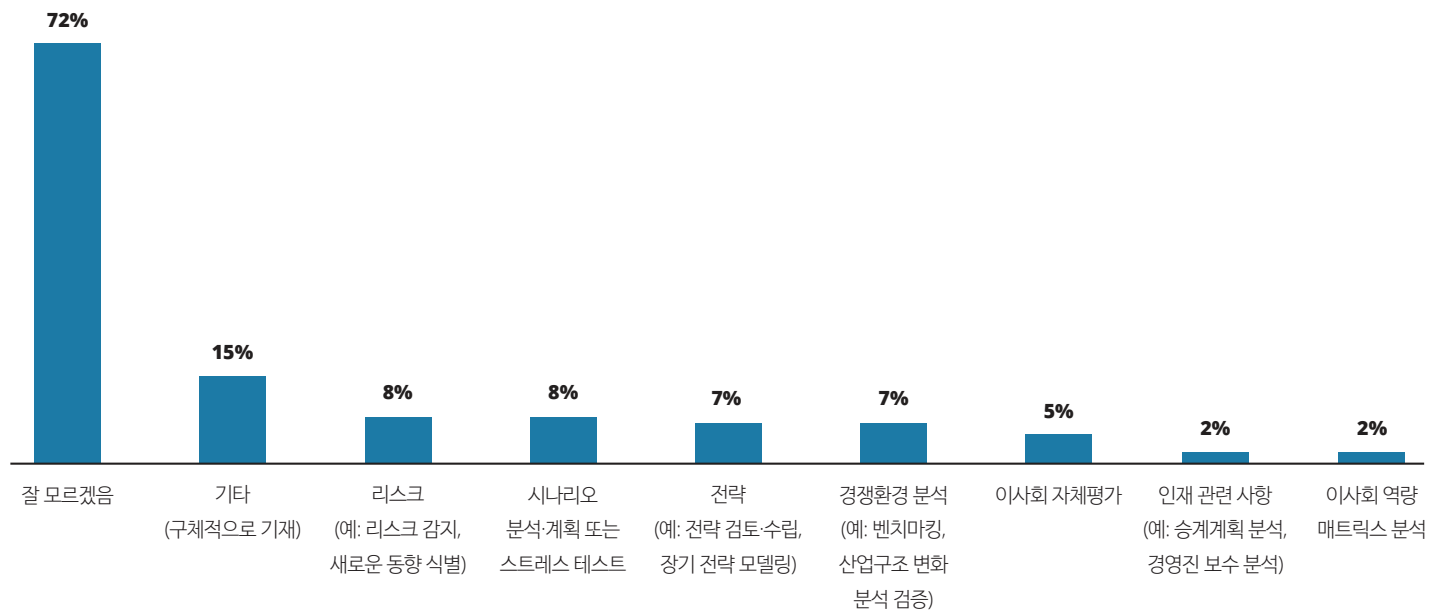
In the past six months, to your knowledge, has your board and/or any of its committees used AI/GenAI to support any of these oversight areas and activities? Select all that apply. (61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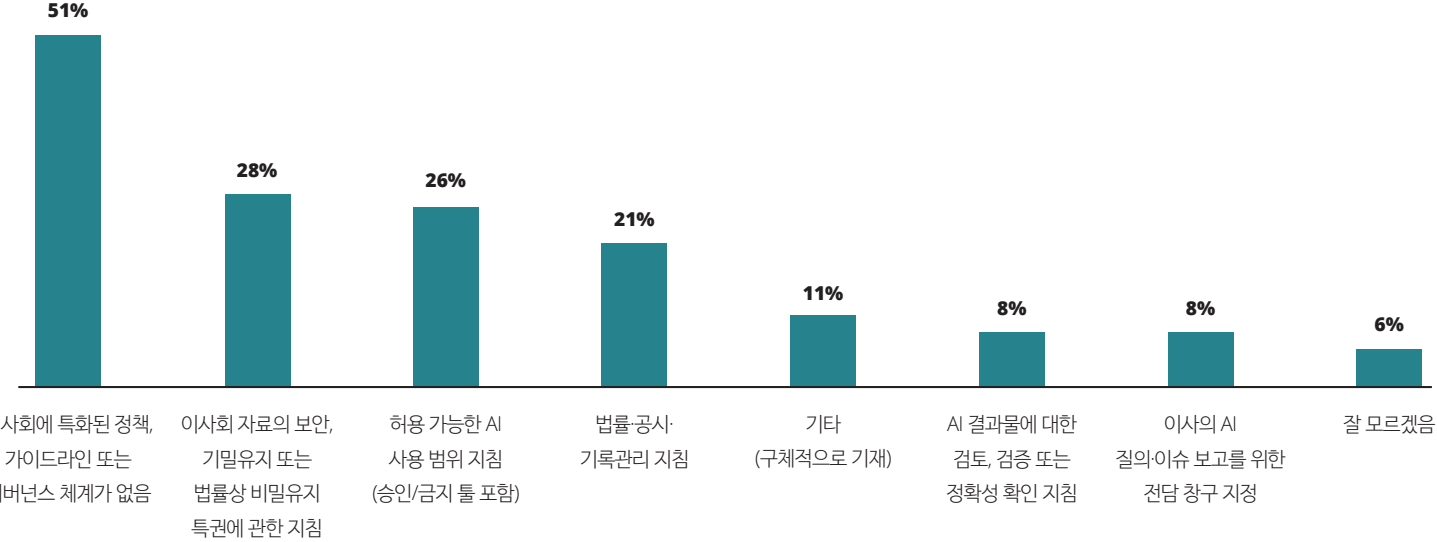
Does your company have any of the following policies, guidelines, or governance practices on use of AI/GenAI by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their board responsibilities? Select all that apply. (72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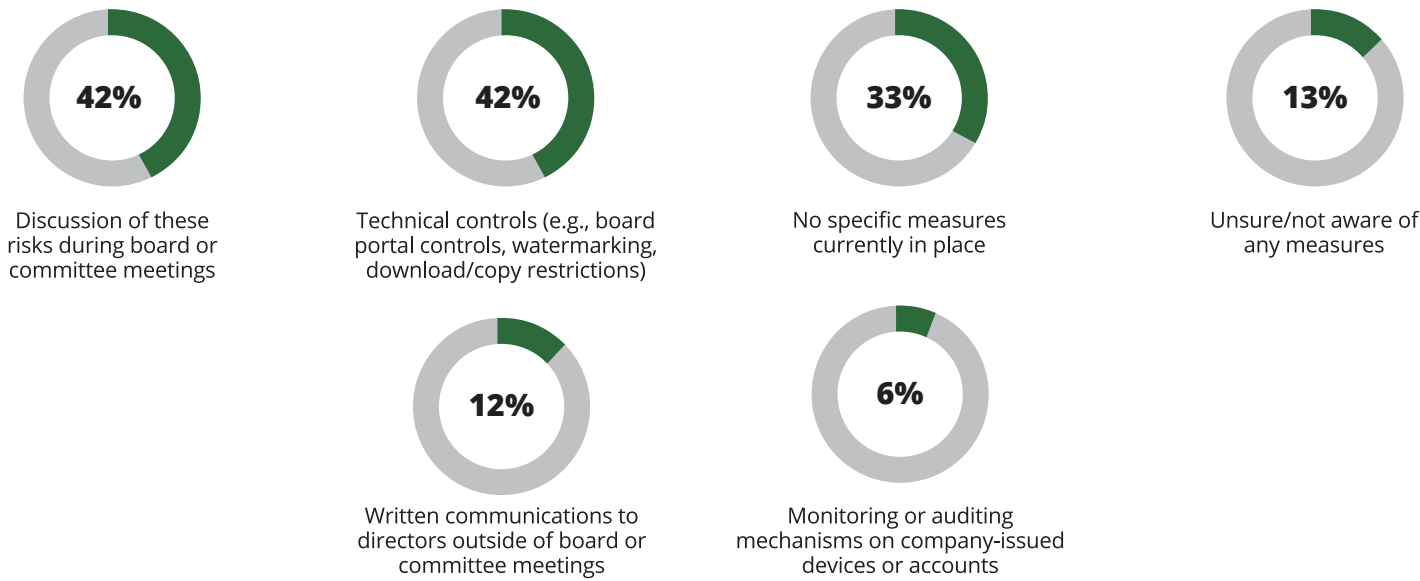
지난 6개월 동안 귀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다음 감독 분야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I/생성형 AI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61명 응답)



귀사는 이사가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면서 AI/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가이드라인 또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72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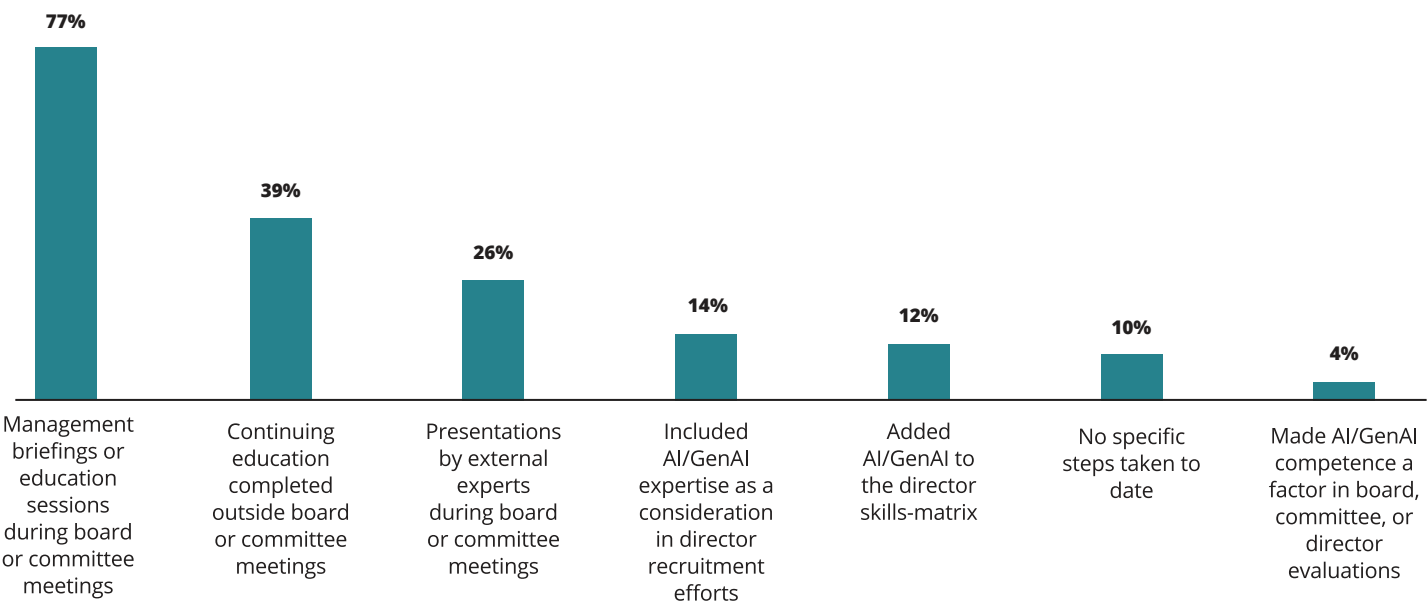


Which of the following measures, if any, are used to manage risks associated with directors using non-approved AI/GenAI tools for board or committee work? Select all that apply. (67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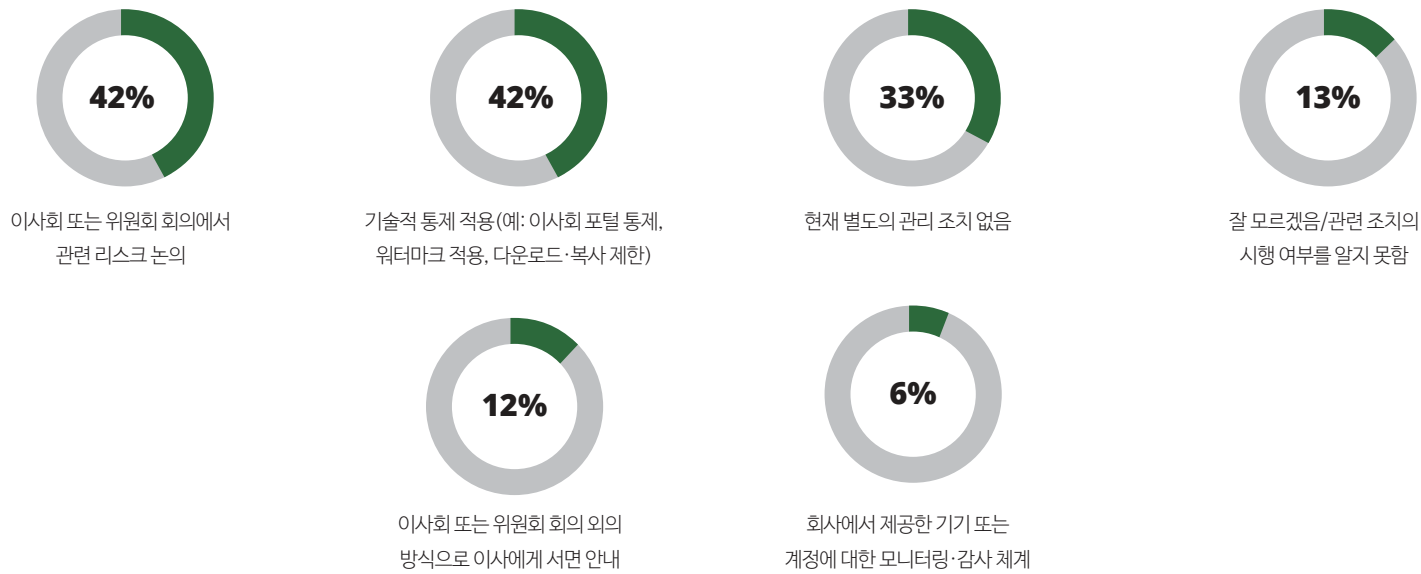
Note: 3% of respondents selected "Other."

In the past six months, has your board undertaken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to enhance AI competence and fluency? Select all that apply. (69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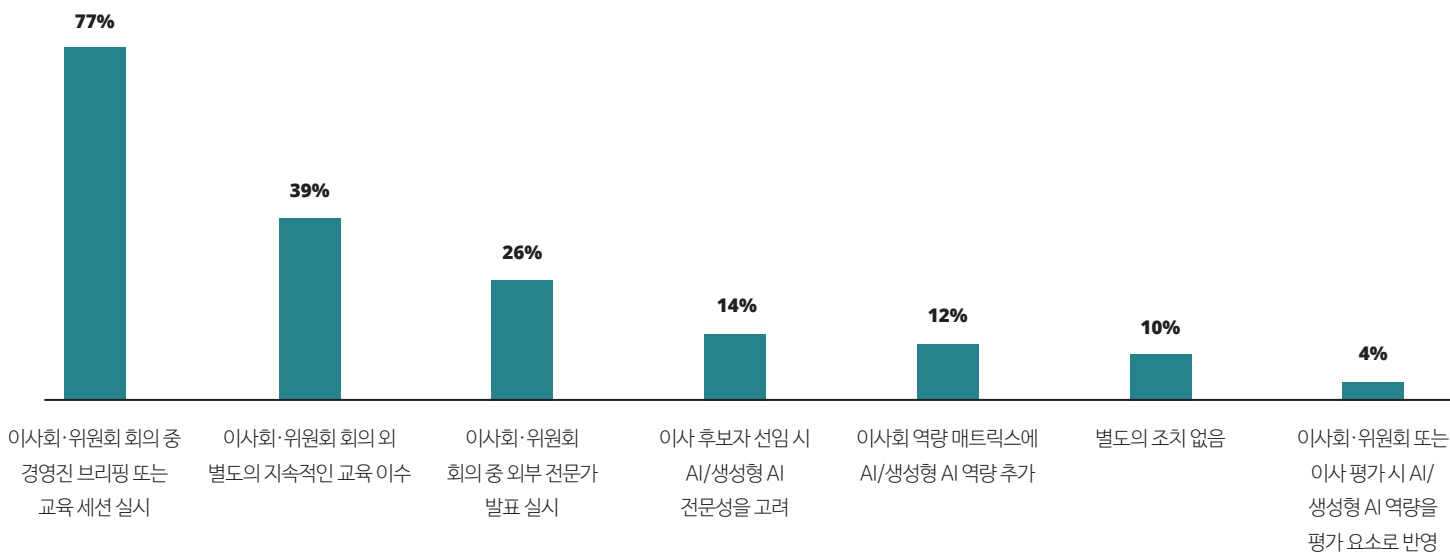
Note: 4% of respondents selected "Unsure/Not aware of any steps taken" and 3% of respondents selected "Other."

귀사는 이사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업무 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AI/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67명 응답)



참고: 응답자의 3%는 '기타'를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귀사의 이사회는 AI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69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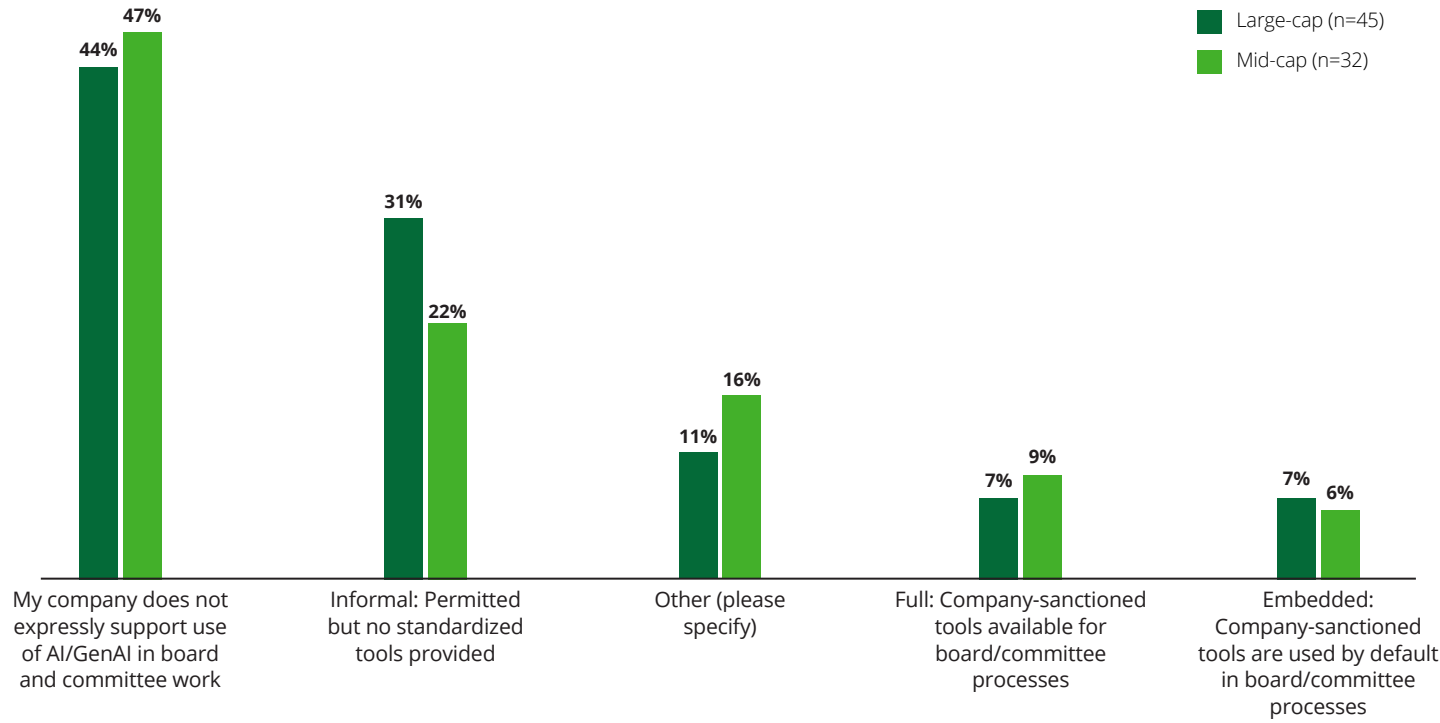
참고: 응답자의 4%는 '잘 모르겠음/관련 조치를 인지하지 못함', 3%는 '기타'를 선택하였습니다.

Appendix: Results by respondent dem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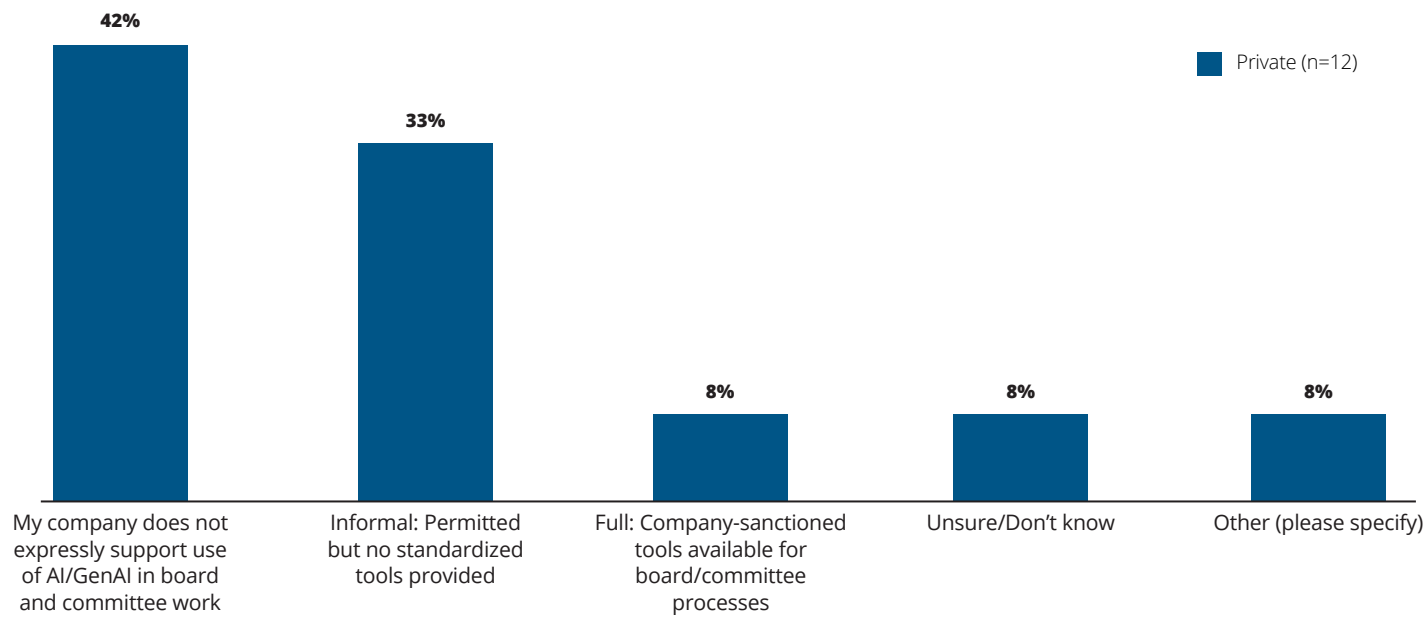
부록: 응답자 특성별 조사 결과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your company’s level of support for AI/GenAI in board and committee work?

Approximately 42% and 47% of respondents across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respectively, reported that their companies do not expressly support AI/GenAI use in board and committee processes. Where use is permitted, it is typically informal, with some companies evaluating or piloting approved t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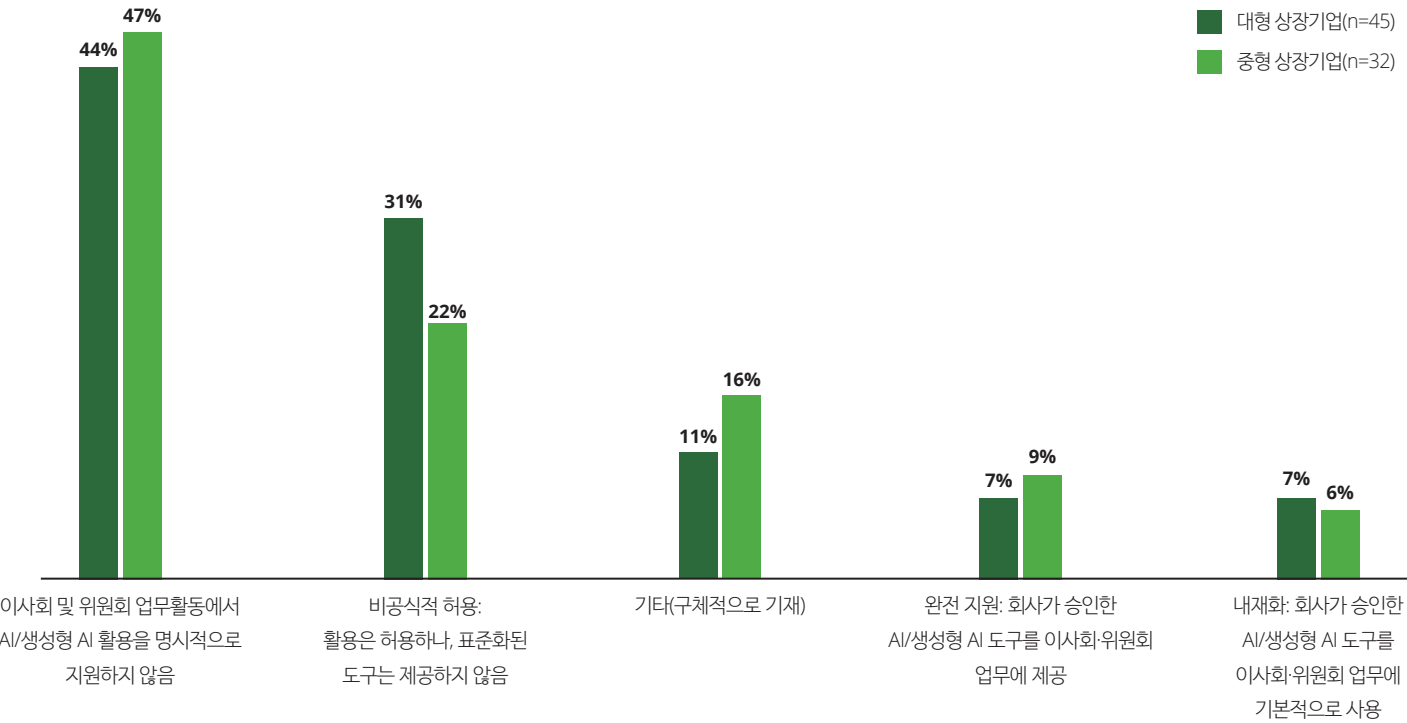
Note: No respondent selected "Unsure/Don't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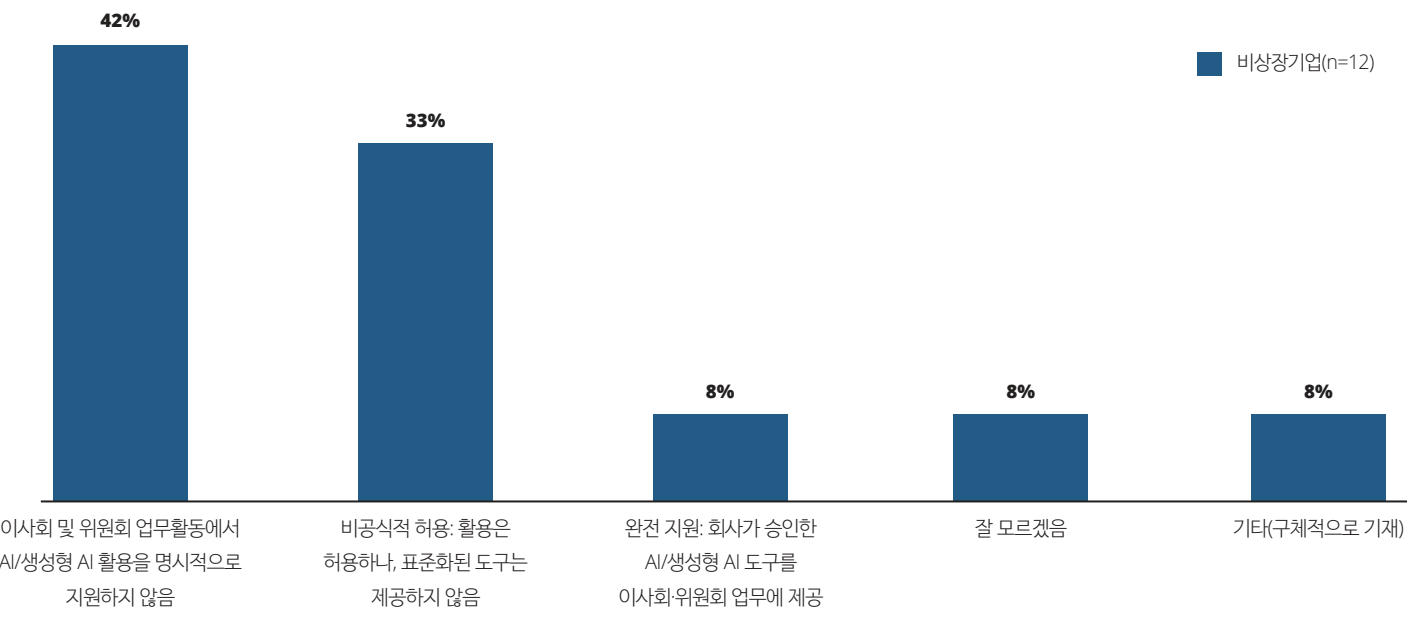
Note: No respondent selected "Embedded: Company-sanctioned tools are used by default in board/committee processes."

귀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업무에서 AI/생성형 AI 활용을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응답자의 각각 약 42%, 47%는 자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업무에서 AI/생성형 AI 활용을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I/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공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기업만이 회사에서 승인한 도구를 평가하거나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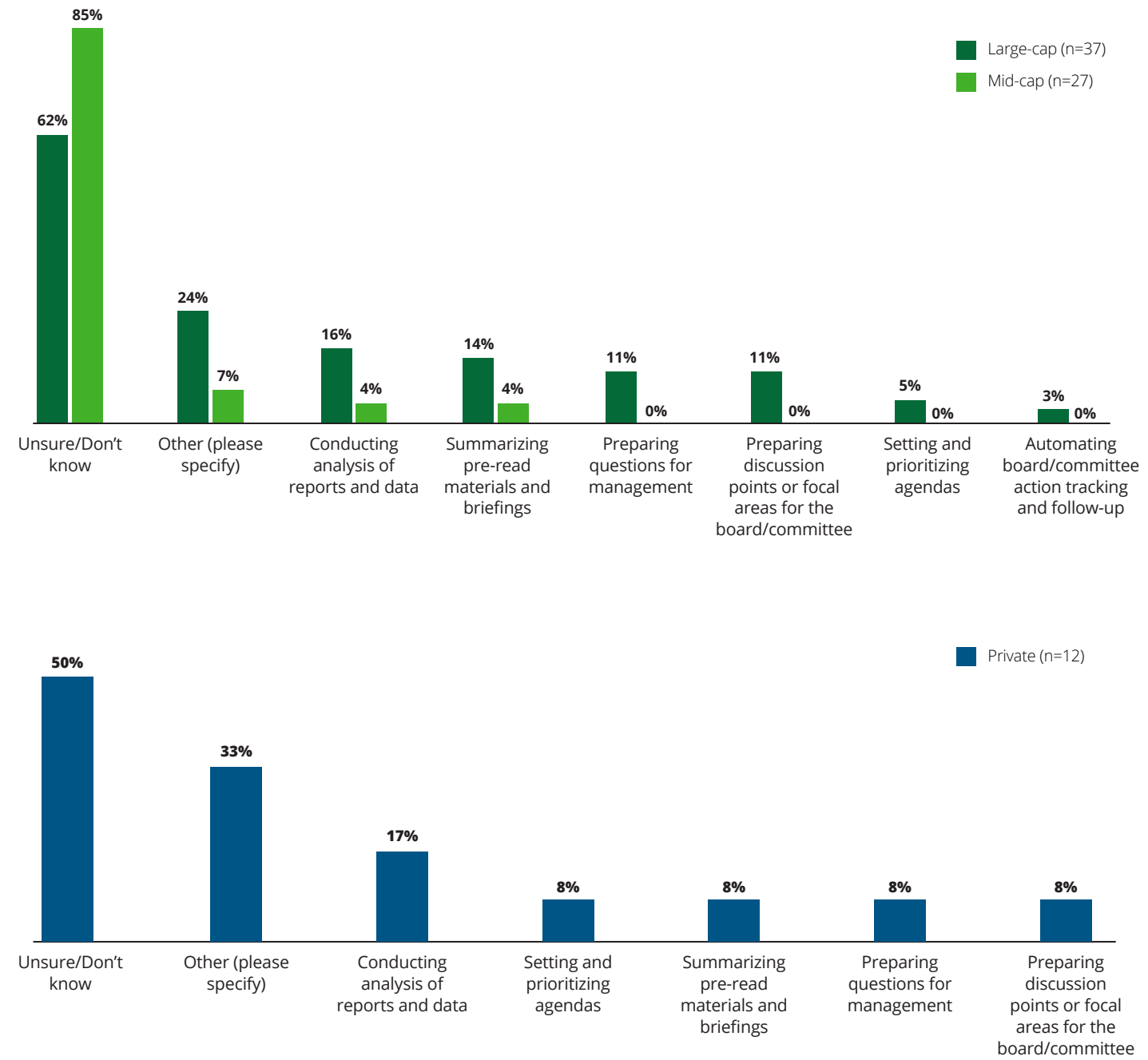
참고: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참고: '내재화: 회사에서 승인한 도구를 이사회 위원회 업무에 기본적으로 사용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In the past six months, to your knowledge, has your board and/or its committee members used AI/GenAI in any of these meeting-related activities? Select all that a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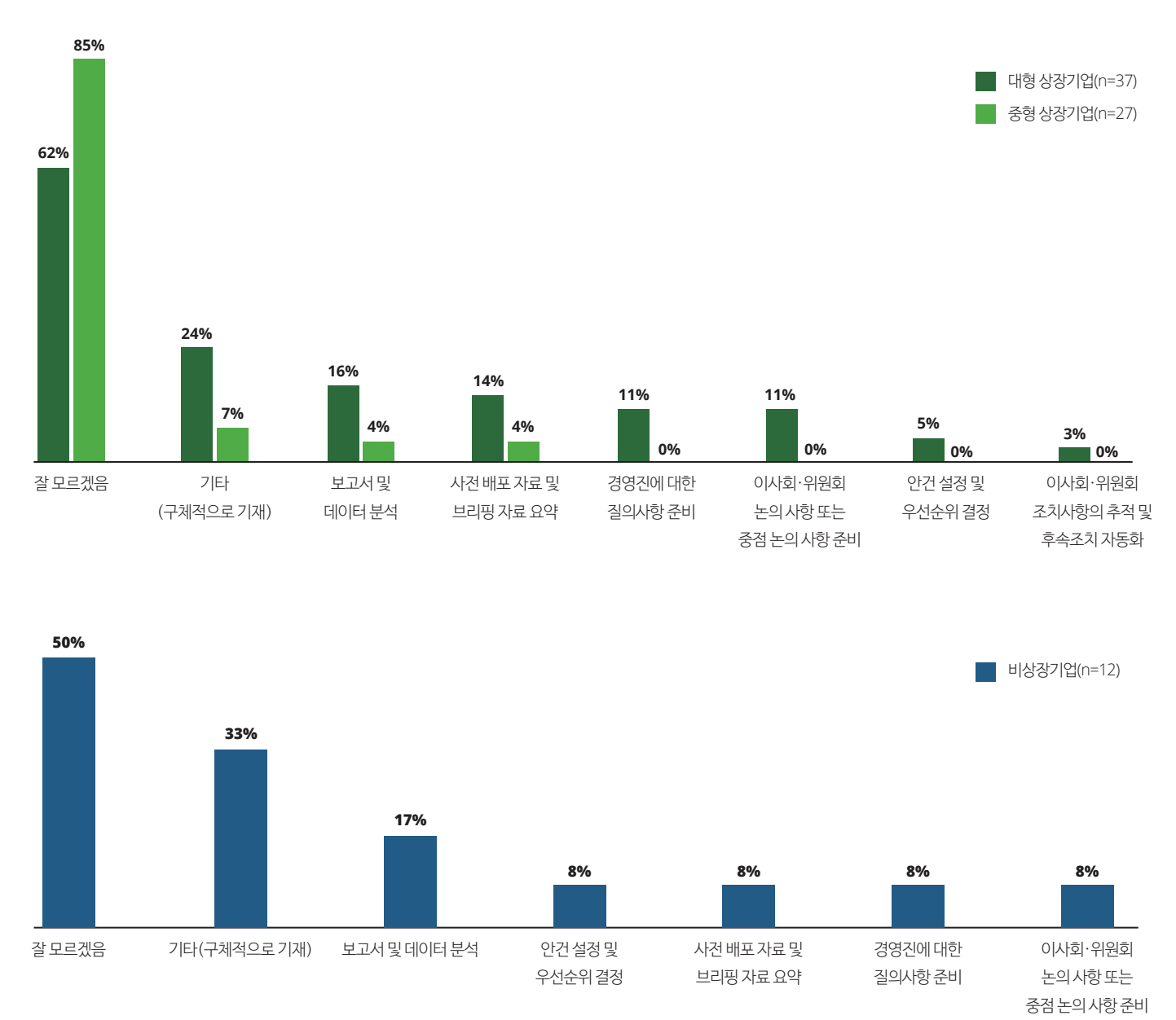
A majority of respondents reported being unsure whether directors or committees had used AI/GenAI in meeting-related activities (71% public and 50% private), particularly among mid-cap companies (85%). Private company respondents reported somewhat higher usage in areas such as report and data analysis and agenda setting, although the respondent base was limited. Among public company respondents, large-cap respondents generally reported higher levels of use than mid-cap respondents for activities such as analysis of reports and data, summarizing pre-read materials, and preparing questions or discussion points. Participant comments also suggest that, in some cases, AI/GenAI use may reflect management or governance-team use for preparing board materials rather than direct director use.



Note: No respondent selected "Automating board/committee action tracking and follow-up."

지난 6개월 동안 (귀하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귀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다음의 회의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AI/생성형 AI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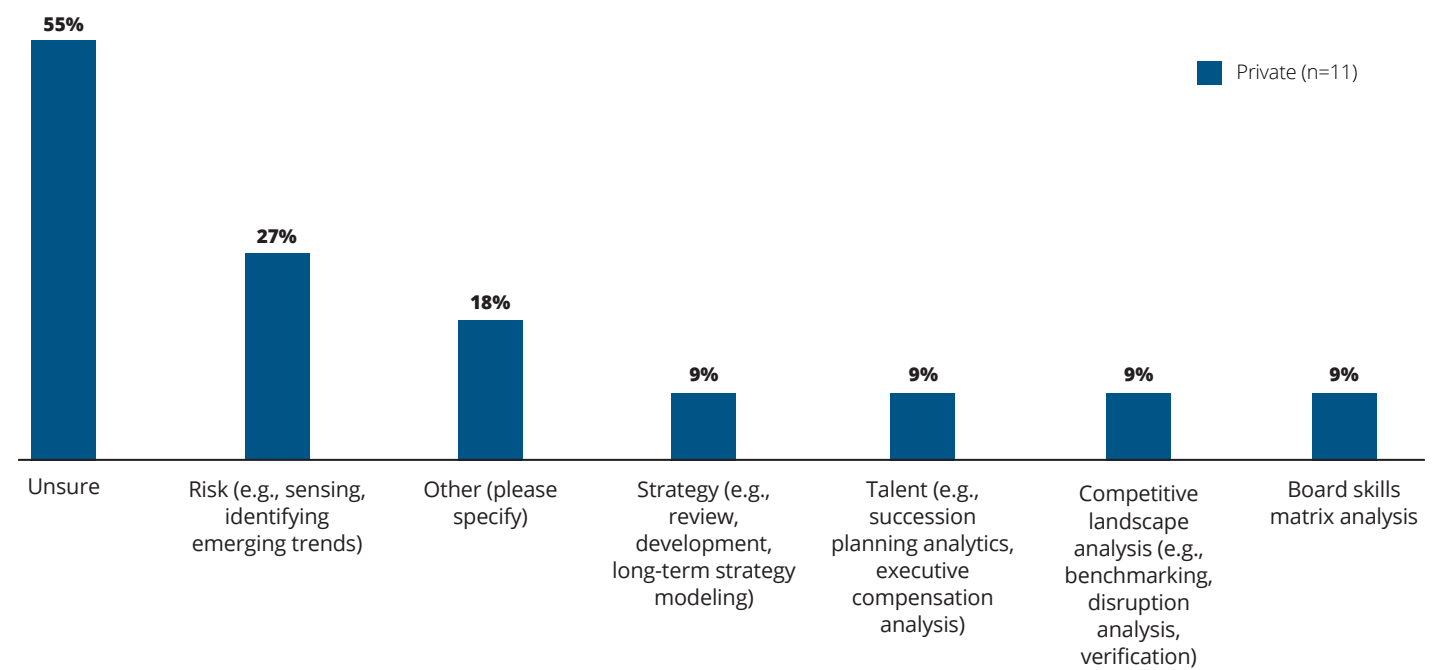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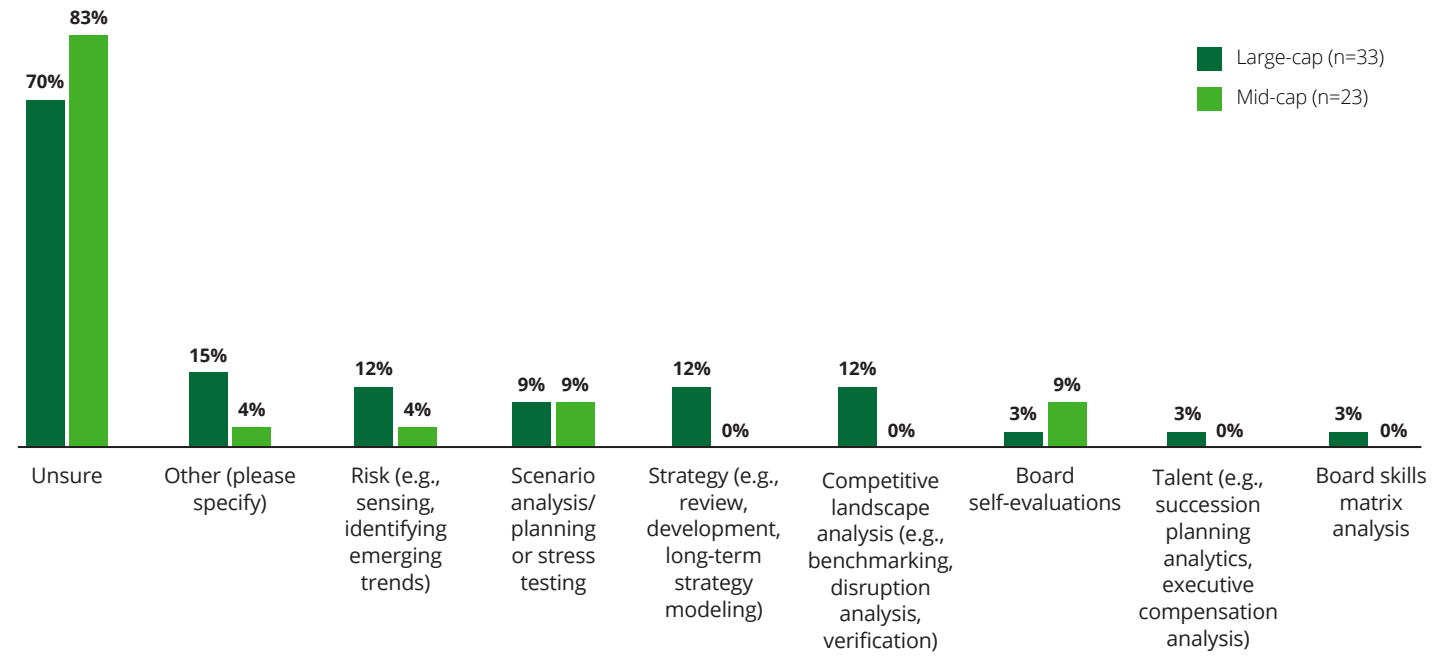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과반수는 이사 또는 위원회가 회의 관련 활동에 AI/생성형 AI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상장기업 71%, 비상장기업 5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형 상장기업은 8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형 상장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서는 보고서 및 데이터 분석, 안건 설정 등의 영역에서 상장기업보다 AI/생성형 AI 활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자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대형 상장기업이 중형 상장기업보다 보고서 및 데이터 분석, 사전 배포자료 요약, 경영진 질의사항 또는 논의사항 준비 등의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활용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응답자 의견에 따르면 일부 사례에서의 AI/생성형 AI 활용은 이사가 직접 활용한 경우라기보다, 경영진 또는 거버넌스 담당 조직이 이사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사례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사회·위원회 조치사항의 추적 및 후속조치 자동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In the past six months, to your knowledge, has your board and/or any of its committees used AI/GenAI to support any of these oversight areas and activities? Select all that a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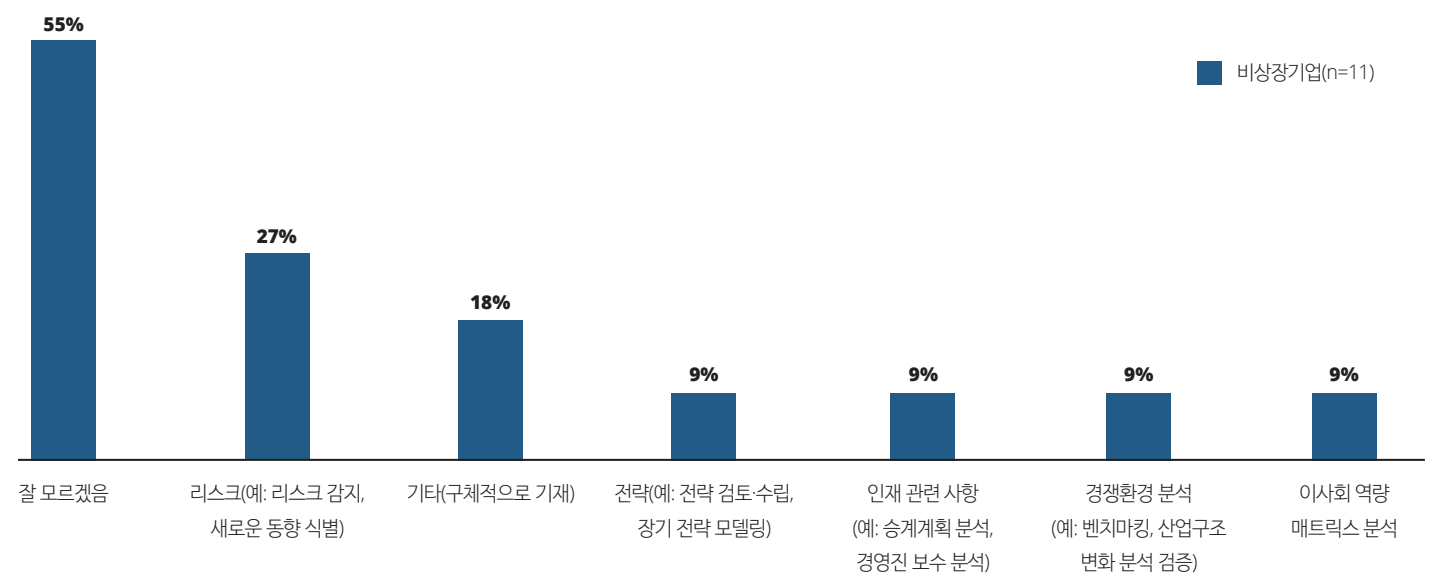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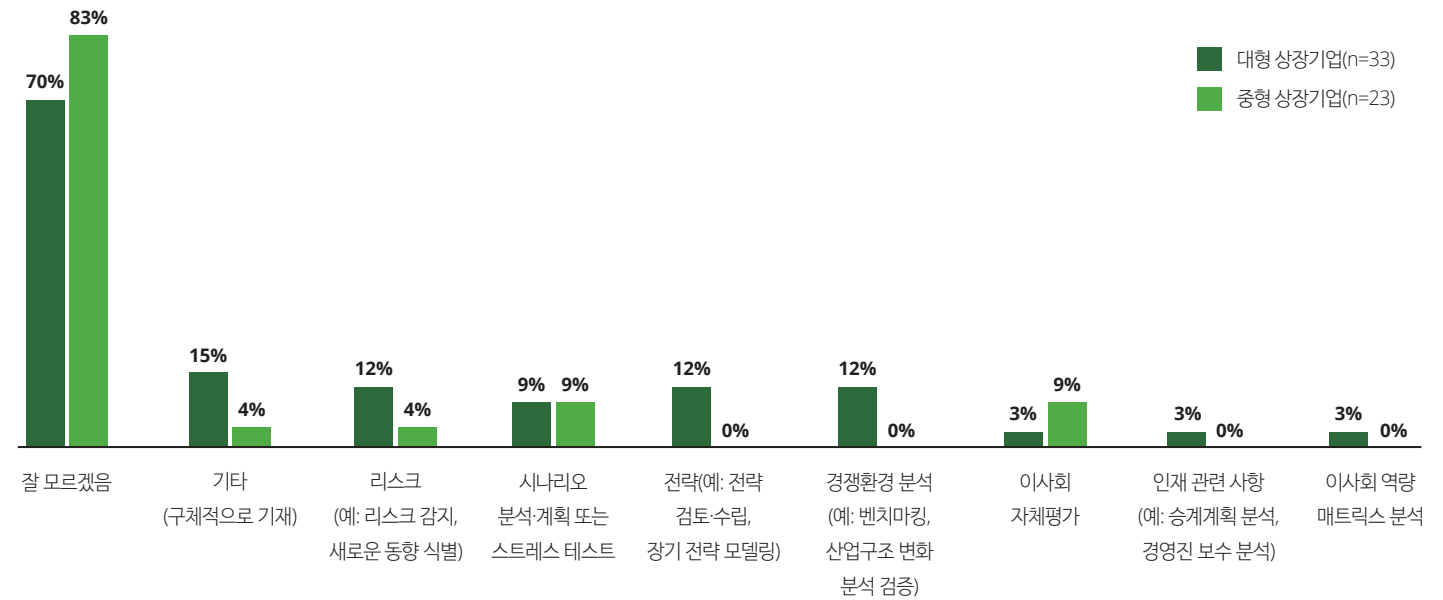
Most respondents indicated they were “unsure” whether AI/GenAI had been used in oversight-related functions and other activities such as risk sensing, strategy, and competitive analysis. Large-cap respondents reported modestly higher levels of AI/GenAI use than mid-cap respondents in several areas, including risk sensing (12% vs. 4%), strategy (12% vs. 0%), and competitive analysis (12% vs. 0%), while mid-cap respondents matched large-cap respondents in scenario analysis at 9% and exceeded them in board self-evaluations (9% vs. 3%). A small number of private company respondents reported AI/GenAI use associated with risk oversight.



Note: No respondent selected "Scenario analysis/planning or stress testing" and "Board self-evaluations."

지난 6개월 동안 귀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다음 감독 분야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AI/생성형 AI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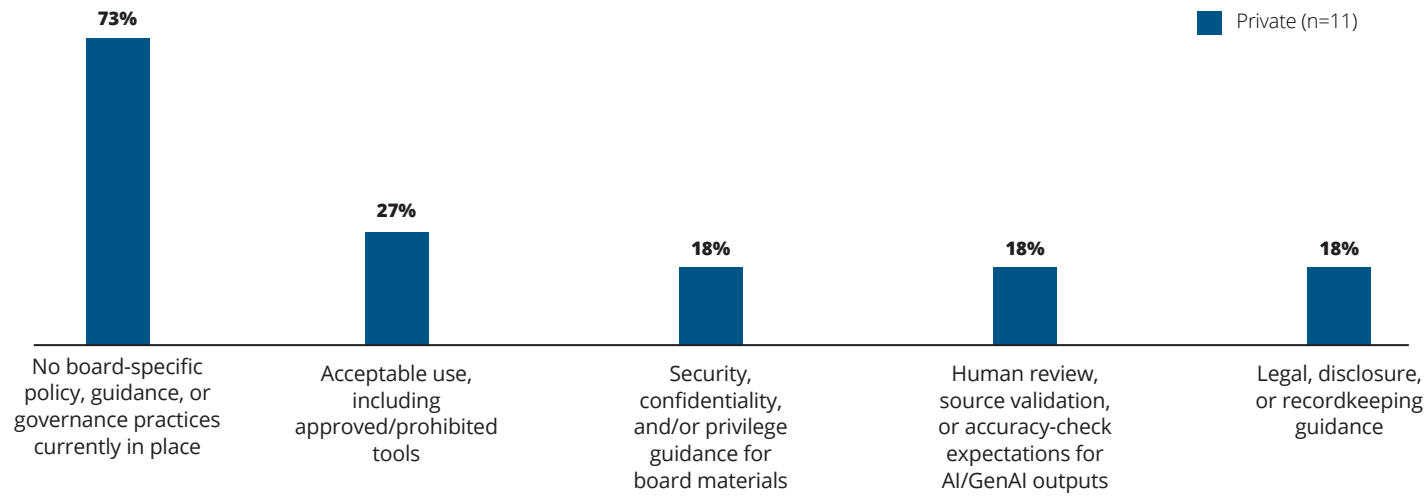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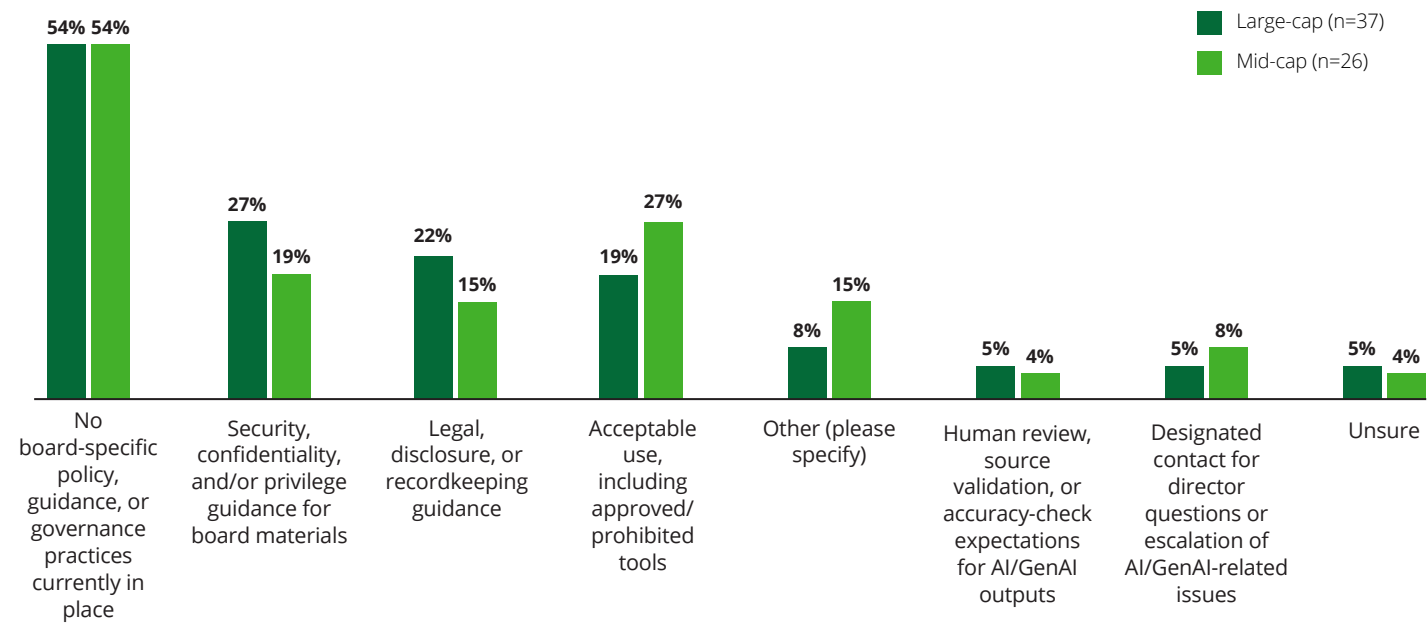
대부분의 응답자는 리스크 감지, 전략, 경쟁환경 분석 등을 포함한 감독 관련 업무에서 AI/생성형 AI가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대형 상장기업은 중형 상장기업보다 리스크 감지(12% vs. 4%), 전략(12% vs. 0%), 경쟁환경 분석(12% vs. 0%) 분야에서 AI/생성형 AI 활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분석은 두 그룹 모두 9%로 동일했으며, 이사회 자체평가는 중형 상장기업(9%)이 대형 상장기업(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상장기업에서는 리스크 감독 업무와 관련한 AI/생성형 AI 활용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시나리오 분석·계획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 및 '이사회 자체평가'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Does your company have any of the following policies, guidelines, or governance practices on use of AI/GenAI by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their board responsibilities? Select all that a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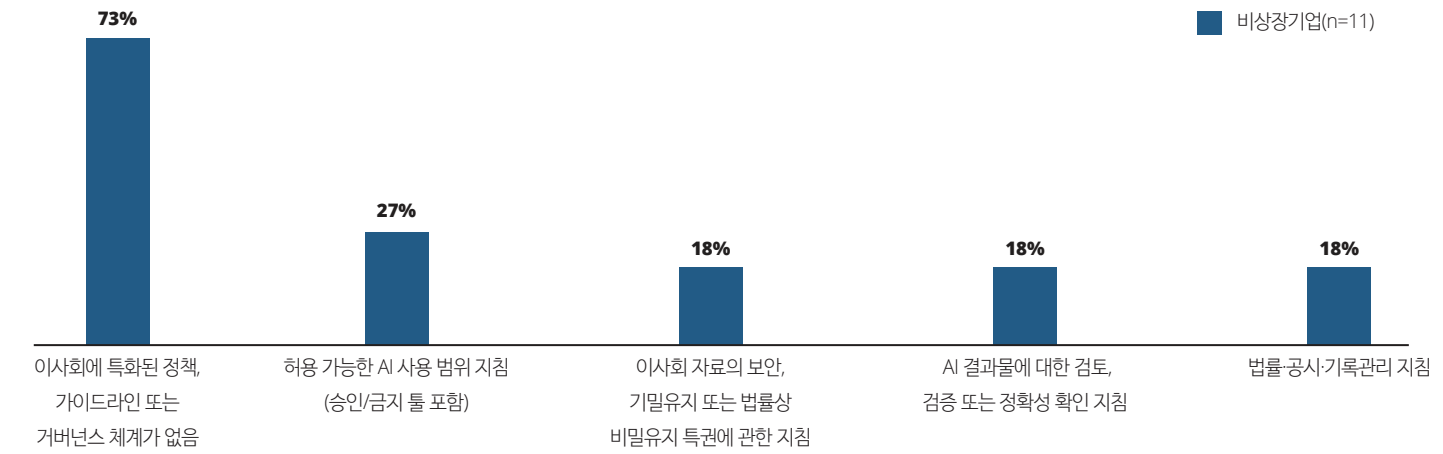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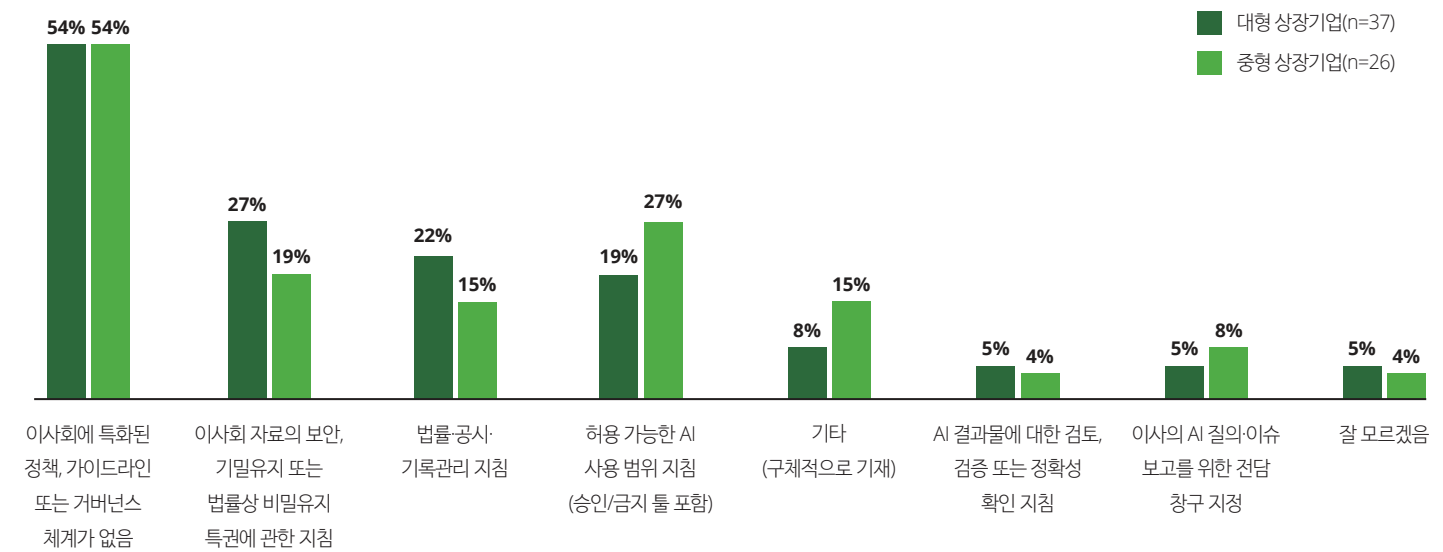
Of those surveyed, 51% of public companies and 73% of private companies do not have board-specific AI/GenAI policies. Where policies exist, they commonly address security, confidentiality, acceptable use, and legal guidance. Private companies more commonly report expectations for human review, source validation, or accuracy checks (18% private and 8% public).



Note: No respondent selected "Designated contact for director questions or escalation of AI/GenAI-related issues", "Unsure", or "Other."

귀사는 이사가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면서 AI/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가이드라인 또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상장기업의 51%, 비상장기업의 73%는 이사회에 특화된 AI/생성형 AI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정책을 마련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보안, 기밀유지, 허용되는 사용 범위 및 법률적 지침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비상장기업에서는 AI/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인적 검토, 출처 검증 또는 정확성 확인을 요구하는 비율이 18%로, 상장기업(8%)보다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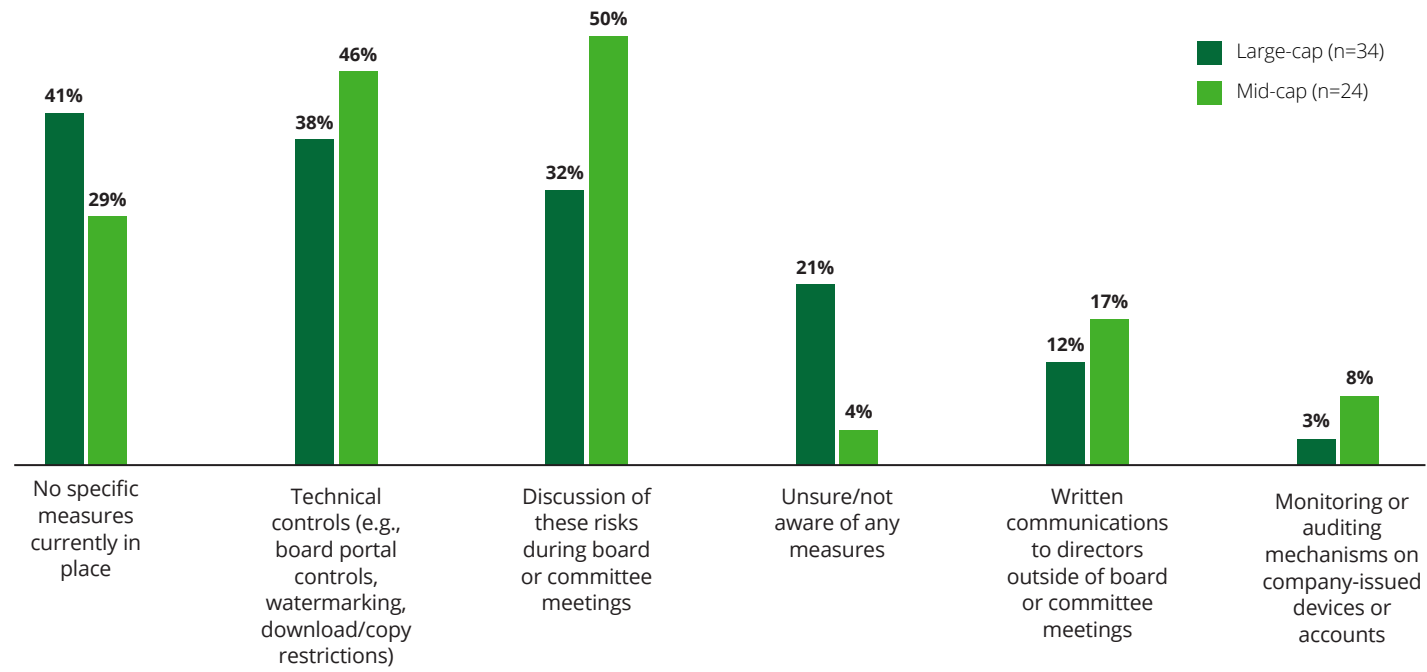


참고: '이사의 AI 질의·이슈 보고를 위한 전담 창구 지정', '잘 모르겠음' 또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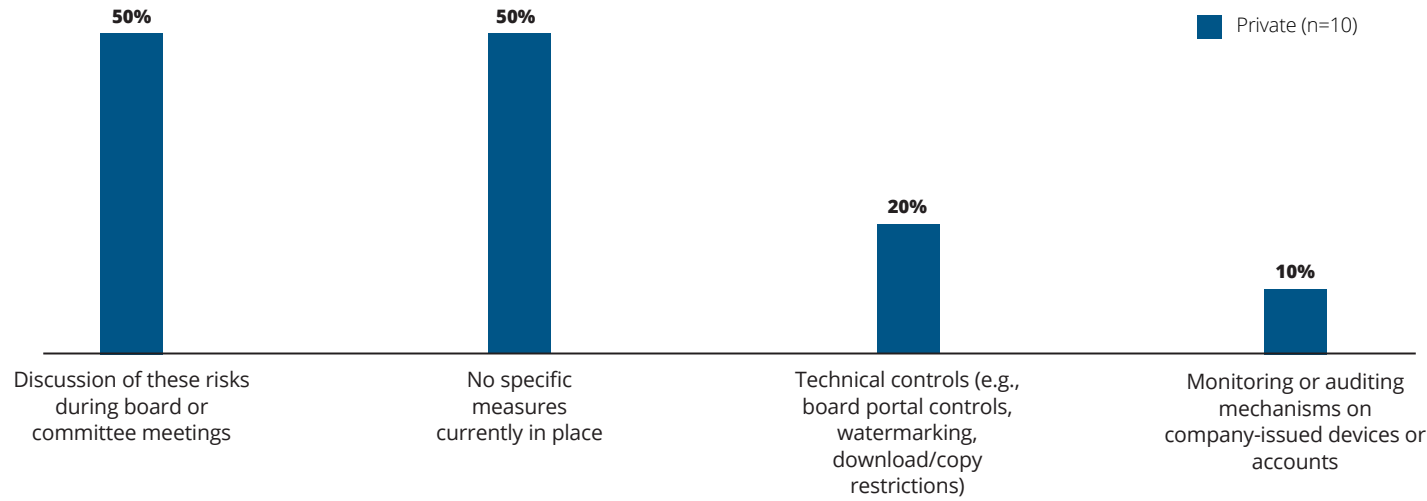
Which of the following measures, if any, are used to manage risks associated with directors using non-approved AI/ GenAI tools for board or committee work? Select all that apply.

Among public company respondents, the most commonly cited risk-management measures were board or committee discussions (42%) and technical controls (42%), while private companies most commonly reported board or committee discussions (50%) or no specific measures (50%). Use of technical controls was less prevalent among private companies (20%).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market caps is that 41% of large-cap respondents, compared to 29% of mid-cap respondents, reported having no specific measures currently in place. Further, large-cap respondents were less likely than mid-cap respondents to report discussions of these risks (32% versus 50%) and fewer have technical controls in place (38% vs. 46%, respectively).



Note: 3% of large-cap respondents and no mid-cap respondents selected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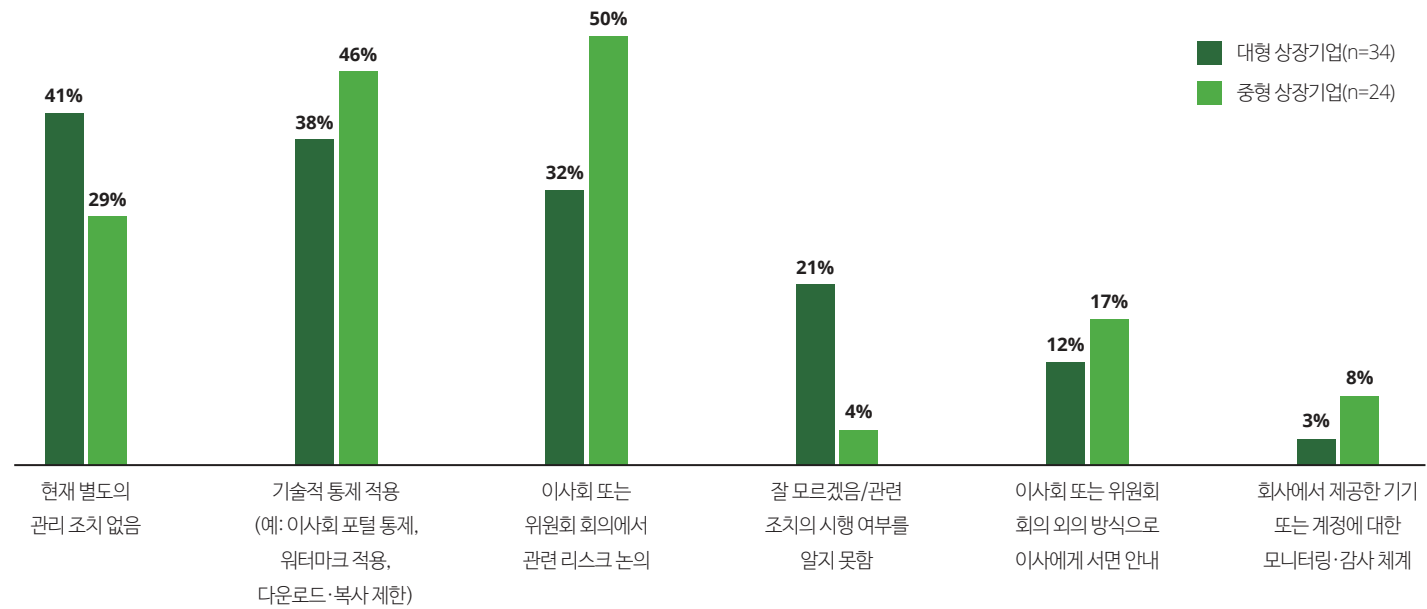


Note: No respondent selected "Written communications to directors outside of board or committee meetings", "Unsure/not aware of any measures", or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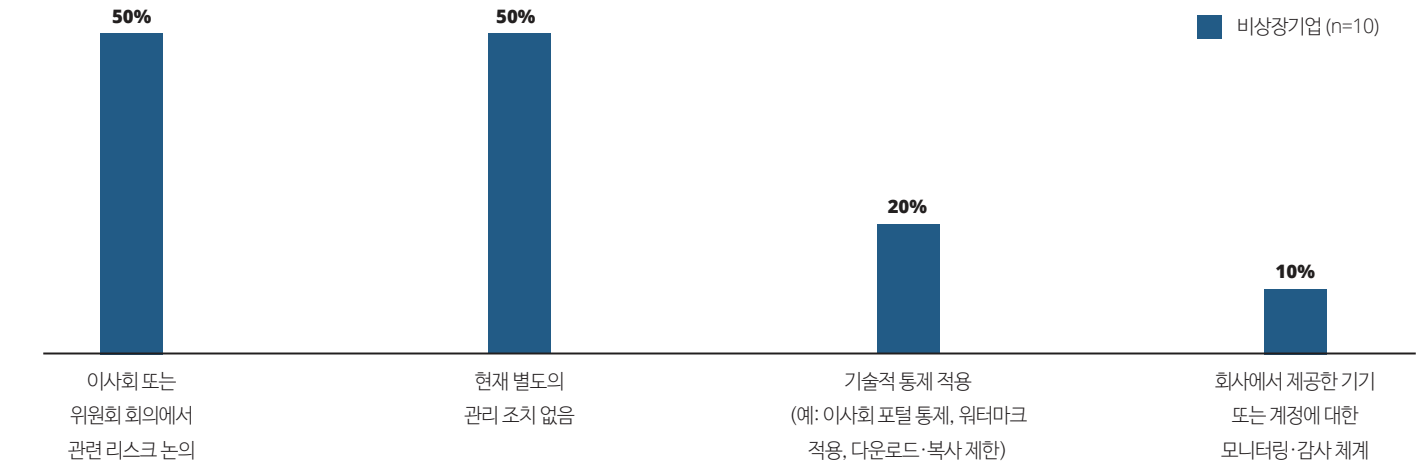
귀사는 이사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업무 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AI/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상장기업 응답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리스크 관리 조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논의(42%)와 기술적 통제(42%)였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논의(50%)와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50%)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술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비상장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도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형 상장기업이 41%로, 중형 상장기업(29%)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관련 리스크를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대형 상장기업이 32%로 중형 상장기업(50%)보다 낮았으며, 기술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대형 상장기업이 38%로 중형 상장기업(46%)보다 낮았습니다.



참고: 대형 상장기업 응답자의 3%가 '기타'를 선택했으며, 중형 상장기업 응답자 중에서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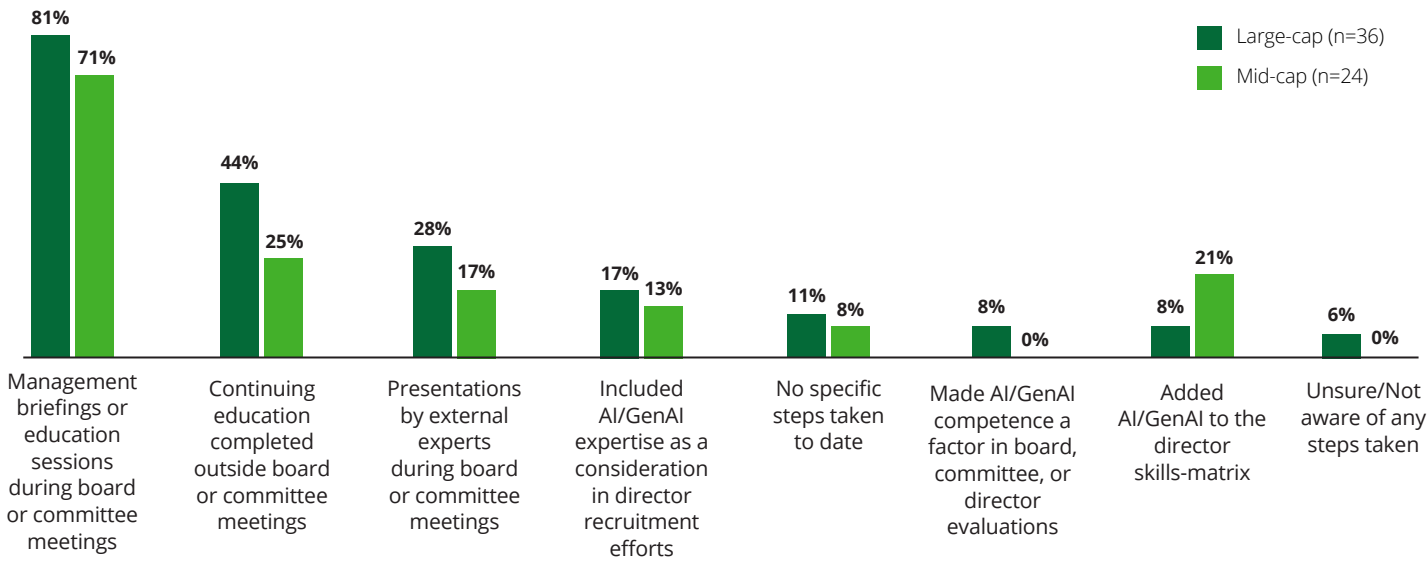


참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 외의 방식으로 이사회에게 서면 안내', '잘 모르겠음/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함' 또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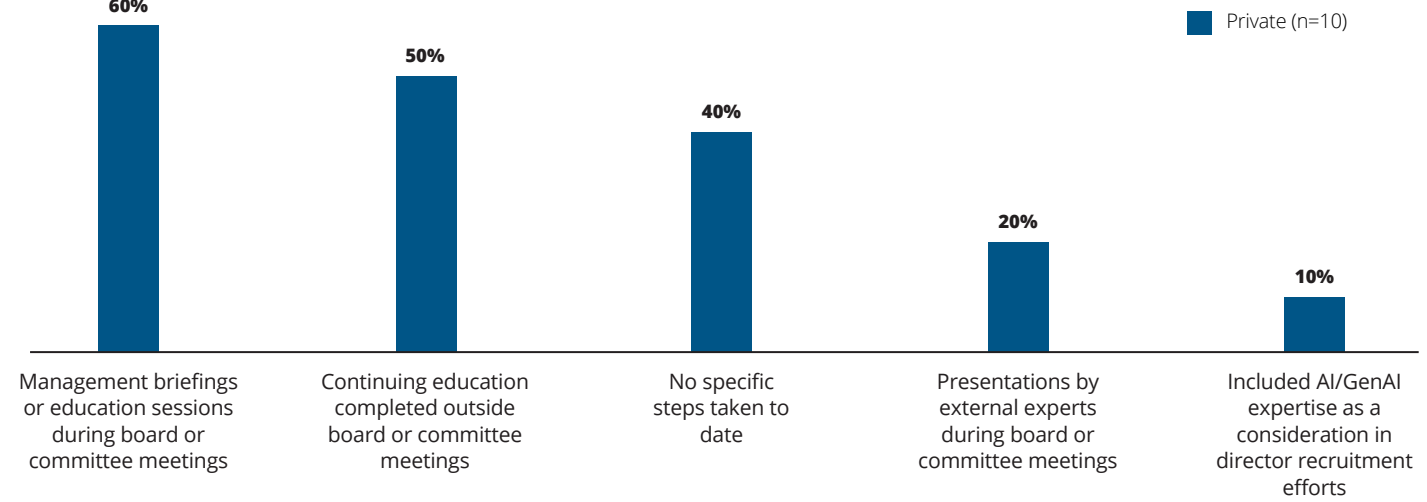
In the past six months, has your board undertaken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to enhance AI competence and fluency? Select all that apply.

There are a few notable differences between market caps. In particular, 44% of large-caps compared to 25% of mid-caps reported continuing education completed outside board or committee meetings; 28% of large-caps compared to 17% of mid-caps reported presentations by external experts during board or committee meetings; and 8% of large-caps compared to 21% of mid-caps reported adding AI/GenAI to the director skills-matrix.

Responses regarding efforts to enhance board AI and fluency also varied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mpany respondents. Public company respondents more commonly reported management briefings or education sessions during board or committee meetings, while a higher percentage of private company respondents reported that no specific steps had been taken to date.



Note: 3% of large-cap respondents and 4% of mid-cap respondents selected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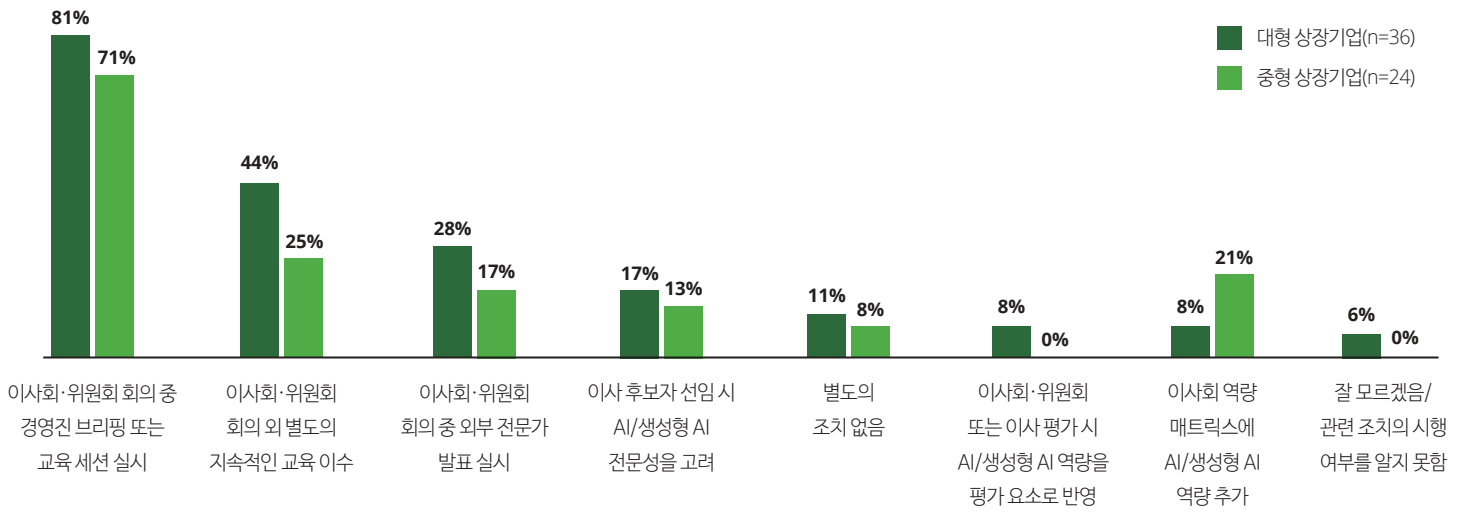


Note: No respondent selected "Made AI/GenAI competence a factor in board, committee, or director evaluations", "Added AI/GenAI to the director skills-matrix", "Unsure/Not aware of any steps taken" or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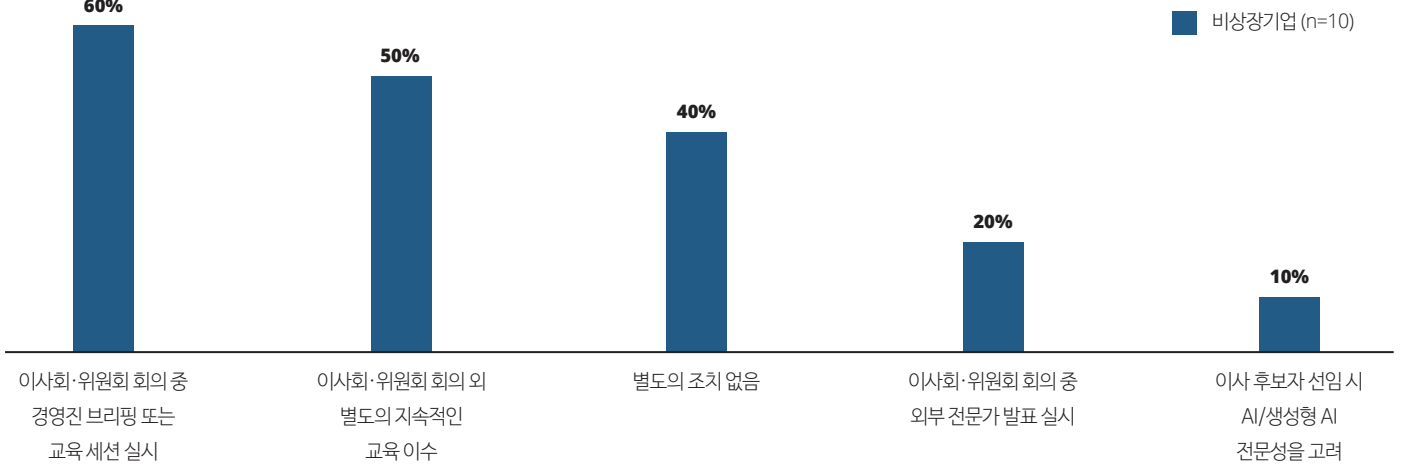
지난 6개월 동안, 귀사의 이사회는 AI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시가총액 규모별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 외 별도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은 대형 상장기업 44%, 중형 상장기업 25%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발표를 진행했다는 응답은 대형 상장기업 28%, 중형 상장기업이 17%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에 AI·생성형 AI 역량을 추가했다는 응답은 대형 상장기업 8%, 중형 상장기업 21%로 나타났습니다.

이사회 AI 이해도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서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상장기업에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의 중 경영진 브리핑이나 교육 세션을 실시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비상장기업은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참고: 대형 상장기업의 3%와 중형 상장기업의 4%가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참고: '이사회·위원회 또는 이사 평가 시 AI·생성형 AI 역량을 평가 요소로 반영',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에 AI·생성형 AI 역량 추가', '잘 모르겠음/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함' 또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Authors

Natalie Cooper
Senior Manager
Firm Strategic Relationship Management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Deloitte LLP
natcooper@deloitte.com

Randi Val Morrison
General Counsel & Chief Knowledge Officer
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rmorrison@societycorp.gov.org

Contacts

Christine Davine
Managing Partner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Deloitte & Touche LLP
cdavine@deloitte.com

Maureen Bujno
Managing Director and Audit & Assurance Governance Leader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Deloitte & Touche LLP
mbujno@deloitte.com

Krista Parsons
Managing Director, Audit & Assurance
Global and US Audit Committee
Program Leader
Deloitte & Touche LLP
kparsons@deloitte.com

Caroline Schoenecker
Managing Director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Deloitte LLP
cschoenecker@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임승열 파트너
회계감사
seul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인증 및 회계자문 리더
hyunjeong@deloit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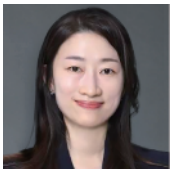
김학범 파트너
내부감사 지원서비스 리더
hbkim@deloitte.com



최치호 수석위원
디지털 자산 리더
chihochoi@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minjyoo@deloitte.com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eloitte.

About this publication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Deloitte is not,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accounting,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leg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This public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such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r should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busines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Deloitte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

About the 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Founded in 1946, the Society is a professional membership association of approximately 3,800 corporate and assistant secretaries, in-house counsel, outside counsel, and other governance professionals who serve approximately 1,600 entities, including 1,000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of almost every size and industry.

About th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Deloitte's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helps directors deliver value to the organizations they serve through a portfolio of high quality, innovative experiences throughout their tenure as board members. Whether an individual is aspiring to board participation or has extensive board experience, the Center's programs enable them to contribute effectively and provide focus in the areas of governance and audit, strategy, risk, innovation, compensation, and succession.

About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the United States,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the US member firms of DTTL, their related entities that operate using the "Deloitte" nam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Certain services may not be available to attest clients under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public accounting.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파트너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상무보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차장
juyeonlee@deloitte.com

배예슬 과장
yabae@deloitte.com

권예은 대리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